

# 러시아어 아나포라의 화용적 원칙들

이 기 응'

## 1. 문제의 틀

텍스트나 문장의 유기적, 문법적 조직화에 아나포라가 핵심적인, 주요한 수단의 하나임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사나 후행사<sup>1)</sup>를 아나포라적인 요소로 받는 데 작용하는 메카니즘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언어 보편적으로나 개별 언어적으로도 충분히 해명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사정에는 크게 보아 아마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1960년대 이후부터 활발히 진행돼 온 생성문법적 연구들은 아나포라의 문장 내적인 현상들에 관한 통사적 분석과 해명에만 주의를 기울였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Chomsky(1981)에 와서는 아나포라의 영역을 형식론적으로 아주 좁게 축소시키는 규정으로 귀결되고 만다.<sup>2)</sup> 문제는 이처럼 “형식론적으로 재규정된” 아나포라에 대해서만은 적어도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통사론적 원칙이 설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이후에 많은 생성문법적인 연구들이 보여 준 결과는 사정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사실이었다. 가령,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에서 보여지는 소위 “원거리 재귀사”(long-distance reflexives) 현상과 “제로 아나포라”(zero anaphora) 현상은 위와 같은 통사적 접근방식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난제들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지적들을 근거로 해서, Y. Huang(1994)에 가서는 결국 아나포라를 재정

---

\* 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 1) 본 논문에서는 카타포라(cataphora) 현상까지도 포괄하는 아주 일반적인 정의로서 아나포라(anaphora)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일반적 정의에 대해서는 이기웅(1994: 255), Y. Huang(1994: 1) 등을 참조할 것.
- 2) 촘스키의 이러한 축소된 형식론적 정의의 이론적 동기에 관해서는 이기웅(1994: 252-3), Chomsky(1982: 83) 등을 참조할 것.

의하면서<sup>3)</sup> 화용론적 접근방식을 제안하게 된다. 한편 러시아어와 관련해서는, 이기용(1994)이나 재귀소유사의 분석에 초점을 맞춘 김정인(1996) 등에서 아나포라에 관한 생성문법적 규정이 유효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특히 이기용(1994)의 경우에는 의미론적 접근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생성문법적인 동사적 접근방식의 한계가 명백해졌다고 한다면, 이에 반해 아나포라의 다양한 현상들을 의미론적으로 (혹은 화용론이나 논리학적으로) 통합해서 기술할 수 있는 모형은 아직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가령, 이기용(1994)에서는 아나포라를 선행사나 후행사와 그것을 받는 요소 사이의 “의미적 동일성”에 근거하는 현상으로 규정하면서 4가지 유형의 동일성 — i) 지시적 동일성, ii) 유형과 그것의 개별 경우 사이의 동일성, iii) 동일한 부류나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개체들 사이의 동일성, iv) 추상화된 동일성 — 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구분이 단순히 “사실적 타당성”의 규명 차원에서만 이루어졌을 뿐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관점은 다르지만 이러한 한계는 Hintikka & Kulas(1985)의 게임의미론적 접근방식이나 Kamp(1981)에서부터 출발한 담화표시이론(Discourse Representation Theory)의 접근방식, 그리고 Huang(1994)의 화용론적 접근방식 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들은 각자 아나포라적인 요소가 어떻게 선행사와 지시적으로 연결되는가를 특정한 형식적 원칙에 따라 규명하는 데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문제는 아나포라의 해석 조건을 찾는 것과 같은 사실적 타당성의 규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나포라의 허용 및 제약 조건을 찾는 것이다.

요컨대, 문제의 핵심은 텍스트 내에서 아나포라의 생성과 해석을 결정짓는 요소들을 어떻게 “설명적 타당성”을 갖춘 방식으로 분석하느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필자의 생각에 이를 위해서는 일반 이론적 차원에서의 성찰보다는 먼저 주어진 개별 언어 내의 분석에서 — 따라서 여기서는 러시아어의 분석에서 —, 아나포라의 토대가 되는 의미적 동일성과 그것의 개별적 유형화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Q1) 어떠한 유형의 연결관계가 반드시 아나포라화를 요구하는가?

(Q2) 잠재적으로 가능한 연결관계가 여러 개별 경우, 그 중에서 특정한

3) 그러나 그의 정의는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Tesnière(1959)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것이 선택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Q3) 공지시성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허용되는 아나포라의 구조적 특징은 무엇인가?

사실 이러한 세 가지 질문을 개별 언어에서 나타나는 수없이 다양한 아나포라 현상의 개별적인 유형들 하나 하나와 대비해서 관찰하는 것은 상당히 방대한 작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주로 명사구 선행사와 그것을 연결하는 아나포라의 경우들만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 2. “문법적 필수”로서의 아나포라

우선 적어도 문장 단위 내에서는 아나포라가 문법적으로 필수적이라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 그렇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통사적인 개념을 통해서 조건 지우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다음의 예들을 보자.

- 1) Когда Дюроа(i) получит сдачу, он(i)/(j) выйдет из ресторана.
- 1') When Durois(i) receives the change, he(i)/(j) will leave the restaurant.
- 2) Когда он(i) получит сдачу, Дюроа(j) выйдет из ресторана.
- 2') When he(i)/(j) receives the change, Durois(i) will leave the restaurant.
- 3) О себе(i) Ольга(i) никогда не говорила.
- 4) Поняв, что его(i)/(j) вызовут, Пётр(i) нервничал.
- 5) Поняв, что Петра(i) вызовут, он(j) нервничал.
- 6) С сестрой(i) Натальей(j) разговаривает сейчас её(i)/(j) муж.  
(Cf. Падучева (1985: 124))
- 7) Общество(i) защищает человека(j) от самого себя (i)/(j). (Cf. Падучева (1974: 267))

위의 예들의 경우 문장 내에서 각각 (i)와 (i) 혹은 (j)와 (j)가 짝을 이루는 경우가 아나포라 현상이라면, 예 (1)-(3)의 경우에는 이것이 영어나 불어 등과는 달리 러시아어에서는 “성분 통어”(c-command)의 개념에 의해서 설명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예 (4)-(5)에서는 그러한 통사적 종속 관계를 설정하지 않고는 아나포라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예 (6)-(7)은 동사구조 그 자체로 두 가지 대응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로써, 이러한 잠재적 중의성은 실제로는 반화의 역양 구조나 문맥적 차이에 의해서 해소된다.

이러한 고찰로부터, 그리고 위의 예들 중에서 아나포라인 경우 그것이 문법적으로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해본다면,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러시아어에 서는 예 (6)-(7)이 아나포라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경우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아나포라의 생성과 해석에 있어서 필수적인,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조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설정돼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 등위 접속의 구조를 제외한 문장에서 (그리고 화자가 타자의 "말을 옮기는"(logophoric)<sup>4)</sup> "양상들"(modus)의 구조가 아닌 분장에서), 문장 경계 내에 위치하는 둘 이상의 논항들이 지시적 동일성을 갖는 경우 그것들 사이에 반드시 아나포라가 설정된다.

그렇다면 언뜻 보기에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다음과 같은 예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일까?

- 8) Маша есть Маша.
- 9) Издатель журнала "Vogue" считает, что издатель журнала "Vogue" миллионер.
- 10) Иван убеждал дьявола в том, что дьявола не существует.
- 11) Иван убеждал дьявола в том, что его не существует. (Cf. Палучева(1985: 144, 146))

일상 언어에서 흔히 발견되는 예 (8)과 같은 경우들에 있어서는 주어와 지시하는 것이 대상이라면 술어가 지칭하는 것은 그 대상과 결부되는 개념이다. 이 경우 두 개의 동일한 명사 사이에는 엄밀히 말해서 지시적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보그』지 편집장이 자기 자신이 『보그』지 편집장인 것을 모른 채 그 잡지의 편집장이 백만장자라고 여기

4) "말 옮김"(logophoric)이라는 술어와 개념은 Hagège(1974)에 의해 도입됐으나 이에 대한 그 후의 많은 연구들은 — 특히 Chomsky(1981)의 모형에 근거한 — 원래 저자의 이론적 의도와는 상관없는 방식으로 "원기러 재귀사"나 내포문의 대명사 사용에 관한 문제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Hagège(1993: 98 sq.)를 참조할 것.

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따라서 거의 있음직해 보이지 않는 예 (9)의 경우는 어쨌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경우 때문에 우리는 원칙 (#1)에서 ("말 옮김 양상들")에 관한 — 대부분의 경우에는 생략될 수 있는 — 규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규정과 관계해서 Падучева (1985: 145-6)는 '주절에 3인칭 주어가 나오는 경우, 그 주어의 견해로 표상된 세계 내에서의 공지시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그같은 규정은 보문에 올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직접 인용문들이나 자유간접화법적인 인용문들을 생각해본다면 너무 협소하게 설정된 것 같다. 어쨌든 이러한 규정을 통해 예 (10)과 (11)의 차이가 설명될 수 있다. 전자에서는 보문이 "이반의 관점"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면, 후자에서는 "화자의 관점"만이 고려되고 있다.

위에서 설정한 원칙 (#1)은 당연히 공지시적인 논항들 사이에서 어느 것이 아나포라적인 요소가 돼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 즉 아나포라의 방향에 대한 규정을 통해서 보충돼야 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전적으로 어떤 통사적인 제약의 설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힘든 성격의 문제처럼 보인다. 필자의 생각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나포라의 "순행적" 방향성과 "역행적" 방향성을 따로 분리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먼저, 위의 예 (1), (6), (7), (11)에서 보듯, 아나포라 현상에 있어서 순행적 방향성은 가장 자연스러운 방향성이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원칙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순행적 방향성에 어긋나는 예 (3)-(4)를 비롯해서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고려돼야 할 것이다.

12) \*Когда всякая собака(i) довольна, она(i) лает.

13) \*Деньги каждого(i) вернули ему(i). (Op. cit., 154)

여기서 순행적 아나포라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예 (3)-(4)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예 (3)-(4)의 경우는 순행적 방향성에 어긋나기는 하지만 문장을 구성하는 통사적 종속 구조 자체만을 놓고 볼 때는 다음과 같은 환언이 가능하므로 순행적 방향성이 완전히 차단된 구조는 아니다.

3') Ольга(i) никогда не говорила о себе(i).

4') Пётр(i), поняв, что его(i)/(j) вызовут, нервничал.

그렇다면 예 (3)과 (4)의 경우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그것은 다음과

같은 원칙의 설정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

#2) 문장 내에서 아나포라는 순행적이어야 한다. 단, 역행적 아나포라가 허용될 경우, 그것은 생성된 통사구조가 의미구조 속의 지시적 동일성을 깨지 않는 범위에 국한된다.

원칙 (#2)의 두 번째 명제는 그 자체로는 당연히 동어반복적인 성격을 지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명제가 필요하고 또 유의미한 것은 아나포라 요소의 규정에 관한 가장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원칙을 나타내는 첫 번째 명제와의 연관 속에서도이다. 즉, 두 번째 명제는 첫 번째 명제 규정에 대한 예외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왜 (4)의 경우는 아나포라가 허용되는 반면 아래의 예에서는 불가능한지 실제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4') \*Когда он(i) понял, что его(i)/(j) вызовут, Пётр(i) нервничал.

그리고 이와 연관해서 단지 여기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문장 구조와 아나포라, 그리고 “빠르게 작용하는 임시 기억”(быстродействующая память) 사이의 상관성이다<sup>5)</sup>. 해당 통사적 표현이 선형적으로 완결되기 이전의 과도기적 단계들은 순간적으로, 그리고 임시적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됐다가 그 표현이 완결됨과 동시에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삭제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임시 기억”의 수용 용량은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임시 기억”에 부담이 안 되는 구조는 당연히 순행적 구조이다. 역행적 구조에 대해서 우리의 “임시 기억”이 허용할 수 있는 경우가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는 예 (4)와 예 (4')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러시아어의 경우 예 (4')처럼 역행적 아나포라가 독립된 주어-술어 형태의 부사절에 연결되는 것은 “임시 기억”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sup>6)</sup> 이처럼 “임시 기억”과 관련해서 역행적 아나포라가 순행적 아나포라 보

5) Cf. V. H. Yngve(1960), A model and a hypothesis for language structure, *Proceedings of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vol. 104, N 5. 이에 대해서 여기서는 Ревзин(1962: 140-3)을 참조했다.

6) 왜 (2')와 같은 구조가 영어나 불어에서는 허용되고 러시아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조언어학의 관점에서 설명될 문제이며, 우리의 주제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

다 훨씬 더 제한적이라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불어와 러시아어 일상 구어의 예들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 14) Mon père(i), ce matin, sa(i) voiture(j), on l(j)'a piquée.
- 14') \*Ce matin, on l(j)'a piquée, sa(i) voiture(j), mon père(i).
- 14'') Ce matin, on l(j)'a piquée, la voiture(j) de mon père.
- 15) Отец мой(i), утром, у него(i) своровали машину.
- 15') \*Утром, у него(i) своровали машину, отец мой(i).<sup>7)</sup>

한편, 위에서 본 예 (12)-(13)은 양화사에 의해 한정되는 선행사가 분제가 되는 경우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제약 원칙을 설정할 수 있다.

#3) 양화사에 의해 한정되는 선행사 명사구는 문장의 종속 구조 속에서 아나포라적인 요소보다 하위에 놓여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은 양화사 한정 범위가 논리적으로 선행사 명사구와 그것을 받는 아나포라적인 요소 모두에 걸쳐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다. 단지 언뜻 보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이에 위반되는 사실들로 여겨질 수 있다.

- 16) Каков бы ни был язык, его предложения строятся по некоторым правилам. (Cf. Падучева(1974; 105))
- 17) Если кто-нибудь ошибется, мы его поправим. (Cf. Падучева (1985; 157))
- 18) \*Каждый(i) хотел уйти, потому что он(i) устал. (Op. cit., 154)

의 가정과 연관해서 러시아어에서는 어떠한 역행적 구조들이 허용되는가를 명시적으로 해명하는 문제는 앞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일 것이다.

7) 러시아어 일상 구어에서 “테마 주격”(именительный темп)이 문장 첫머리에 오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이에 비해서 문장 마지막에 오는 것은 상대적으로 아주 제한적이다. 가령, а) Они(i) мне надеели, эти разговоры(i) б) Можно попросить Галину Иванову? — Она(i) на работе, Галя(i) 등과 같은 경우들에 한정되는데, 이러한 예들은 “임시 기억”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낮은 경우들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관찰은 Земская(1987; 163-6)을 참조할 것.

여기서 예 (16)-(17)의 경우에는 엄밀히 말해서 선행사와 대명사 사이에 지시적 동일성이 성립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예 (16)에 대해서 Падучева(1974)는 전칭 양화사 한정 명사구와 동일시하고 있으나, 그것은 경우가 다른 문제이다. 예 (16)은 (17)와 마찬가지로 “조건식 지시”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구문은 Geach(1962)의 다음과 같은 예문을 통해서 소위 “donkey anaphora”라고 명명된 경우이다.

- 19) Every farmer who owns a donkey beats it.  
 20) If a farmer owns a donkey, he beats it.

이 예문들에서 선행사 ‘a donkey’와 대명사 ‘it’ 사이의 아나포라 연결과 양화사 한정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1970-80년대의 형식의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양한 논의들을 불러일으켰다. 그 중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해결 노력 중의 하나가 Kamp(1981)와 Heim(1982)에 의한 “담화 표시 이론”인데, 이에 따르면 위의 경우 “조건으로 도입된 세계에서의 동일성”이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이러한 경우는 지시적 동일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정한 원칙 (#1)-(#3)과는 상충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이러한 종류의 구문들은 나중에 “반복 대명사”(pronoun of laziness, местоимение повтора)에 대한 부분에서 다룰 것이다). 반면 예 (18)의 경우에는 종속절의 성격이 문제가 되는데, Падучева(1974)에 따르면 접속사 ‘хотя’, ‘потому что’에 의해 이루어지는 종속절은 등위접속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때, 이 경우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종속절의 경우는 당연히 양화사 한정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이상의 원칙 (#1) (#3)은 지시적 동일성에 기반하는, 그리고 문장 경계 내에서 문법적으로 반드시 요구되는 아나포라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다음으로 우리가 다뤄야 할 문제는 문장 경계를 넘어서는, 즉 문장들 사이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아나포라에 관한 것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다음의 예들을 보자.

- 21) Жила-была девочка(i). Была у неё(i)/девочки(i)/ кошка Мурка(j). Была у кошки(j)/?неё(j)/ три котёнка.  
 21') Жил-был мальчик(i). Была у него(i)/мальчика(i)/ кошка Мурка(j). Была у кошки(j)/неё(j)/ три котёнка.



- 22) Иван(i) увидел, что на балконе находится мужчина(j). И он(i), прижимая палец к губам, прошептал: -- "Тссс!".
- 22') Иван(i) увидел, что на балконе находится мужчина(j). И этот мужчина(j)/мужчина(j)/, прижимая палец к губам, прошептал: -- "Тссс!".
- 22'') Иван(i) увидел, что на балконе(k) находится мужчина(j). И он(j) там(k) ему(i), прижимая палец к губам, прошептал: -- "Тссс!".
- 22''') Иван(i) видел, что на балконе находится мужчина(j). И он(j), прижимая палец к губам, прошептал: -- "Тссс!".

예 (21)과 (21')는 문장 사이의 연결에서 원칙적으로 대명사와 한정표현이 서로 교체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중의성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한정표현이 선호된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일련의 예 (22)-(22''')에서는 아나포라에 의한 연결의 문체가 얼마나 미묘한 문체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문장 사이에서 어떤 때 아나포라에 의한 연결이 필수적인 것일까?

- 23) Юрий Андреевич развёл огонь в плите, Ø/он/ взял ведро и Ø/он/ пошёл к колодцу за водой.
- 23') Юрий Андреевич развёл огонь в плите, ?Юрий Андреевич взял ведро и ?Юрий Андреевич пошёл к колодцу за водой.

예 (23)과 (23')를 비교해보면, 말장난과 같은 비정상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당연히 (23)을 써야 할 것이다. 이로부터, 그리고 앞의 관찰과 더불어, 우리는 궁극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설정할 수 있다.

- #4) 선행 문장에 대해서 텍스트의 응집성과 정합성이 아주 약화되거나 소멸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아나포라가 와야 한다.<sup>8)</sup>

이 원칙은 결국 어떠한 경우에 텍스트의 응집성과 정합성에 치명적 손상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규명을 필요로 하는데, 그러한 작업은 이미 예 (21)-(23')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대단히 많은 양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고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본 논문 서두에서 제기한 질문(Q2)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사실들만 고찰하겠다. 즉, 잠재적으로 가능한 연결관계가 여러

8) 텍스트의 응집성과 정합성에 대한 개념 규정은 이가움(1996)을 참조할 것.

개일 경우 그 중에서 특정한 것이 아나포라로 선택되는 이유 역시 궁극적으로는 텍스트의 응집성과 정합성의 시각에서 해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아나포라적인 연결이 선행사의 문법적, 의미적 내용과 대명사적 요소의 어휘-기능적 내용, 그리고 그것이 속하는 문장으로부터 부과되는 통사-의미적, 화용적 특징 등이 상호 작용하는 복잡한 연결관계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가령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

24) Что жука! Она/это/ же хищник.

24') Что жука! Это/\*она/ же грубая еда. (Op. cit., 177)

두 예문 모두 아나포라 연결이 필수적인 경우이다. 그리고 (24)에서 'это'와 'она' 두 가지 대명사가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앞 문장의 선행사 'жука'의 문법적, 의미적 내용과 뒷 문장의 술어 'хищник'의 의미적 특징 사이에 범주적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일치되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24')에서 오직 'это'에 의한 연결만이 허용되는 것은 그러한 일치가 성립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연히 'это'와 'она'의 어휘-기능적 내용에서의 차이가 이러한 결합 허용 및 결합 제약과 상호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잠재적으로 둘 이상의 선행사가 존재할 수 있는 경우의 예를 살펴보자.

25) [Маша(i) уронила чашку(j) со столишки(k)](e).

25') Она(i)/Ø(i)/ её(j) сломала.

25'') Она(j) сломалась.

25''') Она(k) была скользка.

25''''') Это(e) было нечаянность.

25''''''') \*Она/Маша(i)/эта чашка(j)/ не была чиста.

예 (25)에 대해서 그 이하의 예들에서의 아나포라 연결은 술어로부터 오는 정보와 선행사로부터 오는 정보의 부합을 통해서 그리고 그러한 부합을 표현하는 데 적합한 아나포라 요소 — 가령, 삼인칭 대명사나 Ø 혹은 'это' — 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아나포라의 연결에 있어서 이러한 복합적인 상호작용은 궁극적으로 응집성과 정합성이라는 개념을 축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의 예에서 3인칭 대명사에 의한 아나포라가 불가능한 것은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그것이 중의성을 발생시킴으로써 응집성과 정합성이 깨어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본 논문 서두에서 제기한 질문 (Q3), 즉 공지사성이 없는 아나포라의 구조적 특징과 관계해서 “반복 대명사”의 문제만을 살펴보기로 하자.

- 26) Те, у кого нет велосипеда, мечтают его/велосипед/ завести. (Op. cit., 147-8)
- 27) Он понял, что, вероятно, засорился карбюратор - через него/карбюратор/ попадает бензин в мотор. (Cf. Kibrik(1996: 289))
- 28) Не давай ему свою книгу - он уже её/эту книгу/ купил.
- 30) Найди какого-нибудь слесаря и приведи его/\*какого-нибудь/ к нам. (Cf. Падучева(1985: 156))
- 31) Hob believes a witch blighted his mare. Nob believes she/\*a witch/\*the witch/ killed his sow. (Cf. Geach(1962))

먼저 예 (26)-(28)에서 보듯, “반복 대명사”에 의한 아나포라는 문장 내에서는 문장 사이에서는 선행사와 동일한 표현이나 혹은 그와 유사한 표현으로 대체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우리는 문법적으로 필수적인 아나포라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앞에서 설정한 원칙 (#1)-(#4)와는 상관없는 사실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30)과 같은 경우인데, 이것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바 있던 “donkey anaphora” 유형의 예 (16)-(17) 및 (19)-(20)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경우이다. 단지 예 (16)-(17) 및 (19)-(20)은 문장 내 현상이었다면, 예 (30), (31)은 문장 사이에서의 현상일 뿐이다. 그런데 (16)-(17), (19)-(20), (30), (31) 모두 문법적으로 아나포라가 필수적이며, 또한 선행사와 대명사 사이의 연결 메카니즘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선행사 자체는 비한정적 표현이라면, 그것이 나타내는 대상은 “조건성”의 표현과 결합하면서 어떤 “유일 개체성”을 획득하고, 뒤에 오는 대명사는 바로 이 “유일 개체성”을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반복 대명사”에 의한 문법적으로 필수적인 아나포라에 대해서는 (30), (31)에서 보듯 문장 경계와는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일반 원칙을 설정할 수 있다.

#5) 공지사성이 아닌 의미적 동일성에 근거하는 연결에서, “조건성”의 표현과 결합된 선행사가 “유일 개체성”을 획득할 경우 그것은 반드시 아나포라로 연결된다.

### 3. 맺음말

이상의 관찰과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러시아어에서 명사구 선행사나 후행사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필수적인 아나포라 연결을 조건짓는 원칙들을 살펴봤다. 원칙 (#1)-(#3)은 문장 내 아나포라에 관한 것이라면, 원칙 (#4)는 문장 사이에서의 아나포라에 관한 것이며, 원칙 (#5)는 문장 경계와는 상관없이, 단지 조건화를 통해 도입되는 지시성에 대해서 의미적 응집성을 갖는 단위 내에서의 아나포라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따라서 일종의 상보적 분포와 같은 양상들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원칙 (#5)와 관계해서 우리는 이기웅(1994)에서 제시된, 아나포라 영역과 관련된 “의미적 동일성”에 관한 분류를 수정할 필요성이 생기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조건화된 동일성”의 경우도 추가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문법적으로 필수적인 아나포라에 대한 우리의 고찰과 더불어, 결국 다음과 같은 분류방식이 보다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아나포라의 토대가 되는 의미적 동일성에 대해서 먼저 일차적으로 “지시적 동일성 대 비지시적 동일성”의 구분을 설정하고, 그 다음 후자에 대해서 다시 그 밑에 동일성의 상이한 여러 유형들 — “조건화된 동일성”, “추상화된 동일성”, “유형과 개별 경우 사이의 동일성”, “동일 유형에 속하는 개별 경우들 사이의 동일성”, ... 등 — 을 구분해 놓는 것이 보다 체계적인 분류방식인 것이다.

끝으로, 자연언어 문법구조에 대한 해명에 있어서 문법규칙들과 여기서 우리가 설정한 바와 같은 종류의 원칙들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보자. 만일 자연언어의 문법구조가 Мельчук(1974) 식으로 의미와 텍스트 사이의 대응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문법규칙들은 그러한 대응관계를 구성하는 실제적인 요소들 중의 일부이거나 혹은 이에 준하는 다소간 표준적인 표상들로 간주될 수 있다. 문제는 주어진 문법규칙이 항상 그 자체로, 독자적으로 작동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것은 다른 규칙들과의 비단선적인 엮임이나 문장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 즉 화용적, 의미적, 어휘적, 통사적, 형태적, 음운적 정보들 및 때로는 이들 사이의 접촉면(interface)에서 발생하는 정보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작동하는 경우도 많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결국 문법규칙들을 그 자체로 성립시키는 데 어쩔 수 없는 난점이 있음을 이야기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칙들의 적용과

운용 방식에 대한 일정한 “조절틀”(modulation)이 필요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필요성을 독자적으로 설정된 통사론 중심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Chomsky(1981)의 기획이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아나포라의 경우에 그러한 기획의 한계는 명확하다. 이에 대해서 만일 Chomsky(1994)에서는 어휘부로 관심의 축을 옮겨 놓는 새로운 “조절틀”을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나포라의 해명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태이다. 한편 우리가 여기서 제시한 원칙 (#1)-(#5)도 문법규칙들에 대한 “조절틀”에 속하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의 성격은 보다시피 화용론적 개념을 중심으로 통사론적, 의미론적 개념이 결합돼 있는 복합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로부터 우리는 자연언어 문법구조의 해명에 필요한 “조절틀”이 어떠한 성격의 것일 수밖에 없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김정일(1996), 러시아어 재귀소유형용사 연구 (3인칭 구문을 중심으로),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2집, 한국러시아문학회.
- 이기용(1994), 러시아어에 있어서 아나포라, 『슬라브학보』, 제9권, 한국슬라브학회.
- 이기용(1996), 텍스트의 의미구조와 중의성의 해소, 『언어학』, 제 19호, 한국어언어학회.
- Земская, Е. А. (1987), *Русская разговорная речь*, 2-е изд., Москва; "Русский язык".
- Мельчук, И. А. (1974), *Опыт теории лингвистических моделей "Смысл ↔ Текст"*, Москва; Наука.
- Падучева, Е. В. (1974), *О семантике синтаксиса*, Москва; Наука.
- Падучева, Е. В. (1985), *Высказывание и его соотношенность с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ью*, Москва; Наука.
- Ревзин, И. И. (1962), *Модели языка*, Москва; Наука.
-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 Chomsky, N. (1982), *On the Generative Enterprise: A Discussion with Riny Huybregts and Henk van Riemsdijk*, Dordrecht; Foris.
- Chomsky, N. (1994), Bare phrase structure,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No. 5.
- Geach, P. T. (1962), *Reference and Generality: An Examination of Some Medieval and Modern Theories*, Ithaca; Cornell Univ. Press.
- Hagège, C. (1974), Les pronoms logophoriques, *Bulletin de la Société de Linguistique de Paris*, LXIX, 1.
- Hagège, C. (1993), *The Language Builder*,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Heim, I. (1982), The semantics of definite and indefinite noun phrase, PhD Thesis, Univ. of Massachusetts, Amherst.
- Hintikka, J. & Kulas, J. (1985), *Anaphora and Definite Descriptions*,

- Dordrecht: Reidel.
- Huang, Y. (1994), *The Syntax and Pragmatics of Anaphora*, Cambridge Univ. Press.
- Kamp, H. (1981), A theory of truth and semantic representation, *Formal Methods in the Study of Language*, J. Groenendijk et al., (eds.), Amsterdam; Mathematisch Centrum.
- Kibrik, A. A. (1996), Anaphora in Russian narrative prose: a cognitive calculative account, *Studies in Anaphora*, B. Fox, (ed.),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Tesnière, L. (1957), *Éléments de Syntaxe Structurale*, Paris; Klincksiek.

## РЕЗЮМЕ

## Прагматические принципы анафоризации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Ли Ги Ун

Анафора принадлежит к числу тех языковых феноменов, на которые постоянно обращается внимание в рамках порождающей грамматики и формальной семантики. Но ее узкое и формально-синтаксическое определение, выдвинутое Хомски /Chomsky(1981)/, оказывается неспособным объяснить такие феномены, как “отдаленные возвратные местоимения”(long-distance reflexives), “нулевой заместитель анафоры”(zero-anaphora) в японском, китайском, корейском языках /Cf. Huang(1994)/. И, как замечалось работами Ли Ги Уна /이기웅(1994)/ и Ким Зён-Ила /김정일(1996)/, для анафоры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также не работает такая концепция, как “управление компоненты”(c-command), которое основывает, по теории Хомски, анафорическую связь на синтаксическом уровне. По-моему,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риобрести объяснительную адекватность, работа над анафорой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должна учитывать не только семантикосинтаксические факторы, но и прагматическую обусловленность. Итак, в этой работе, прагматические принципы об анафоризации грамматической обязательности устанавливаются следующим образом:

#1) Внутри предложений, кроме сочинительных структур, (и если они не характеризуются “логофорическим модусом”), более двух кореферентных терминов обязательно подвергается анафоризации.



#2) В предложении анафоризация должна быть прогрессивной; но регрессив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было бы допустимо, только бы это, в порожденной им структуре, не нарушало референциального тождества.

#3) Квантифицированный antecedent не должен, в дерево синтаксических зависимостей предложения, находится ниже, чем его анафорическое выражение.

#4) Между предложениями, анафоризация обязательна в тех случаях, когда неанафорическая связь к предшествующему предложению может расслабить или нарушить семантическую связность или сплоченность данного текста.

#5) Если antecedent неопределенного характера, с выражением обусловленности, приобретает себе специфическую единичность, то связь к нему обязательно делается анафорической.

Эти принципы (#1)–(#5) имеют между собой такой вид как комбинаторное распределение, и, кажется, принадлежат к системе “модуляции”(modulation), которая контролирует применение специфических грамматических правил об анафоре.